

버닝을 보고■ 버닝을 두 번 봤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어서... 라는 이유 때문에 두 번 본 것이면 좋겠지만 제가 버닝을 두 번 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 버닝을 봤을 때 마치 영화의 이름처럼 영혼을 불사르며 정말 열심히 졸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피곤해서(라는 평계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졸다가 깨보니 해미가 사라져서 ‘해미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 종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졸다가 또 깼는데 종수는 여전히 해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다 깨기를 몇 번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야기가 이해가 갔습니다(or 갔다고 착각을 했던가요). 왜냐면 가엾은 종수가 계속 계속 해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침내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때 즈음 종수가 벤을 죽여 버렸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게, 화면 저 멀리서 칼로 푹-. 그래서 저는 ‘아 이 이야기는 종수가 사랑하는 해미를 계속 찾다가 벤을 죽여 버리는 이야기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그렇게나 졸았는데 나름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재밌다고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됐지? 이게 왜깐느에 갔지? 이걸 왜 친구들이 보라고, 보고 난 후 “얘기하자”고 했지?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꺼리를 발견하고 말테다’는 마음가짐으로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영화를 보게 됐어요. (여전히 지루한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감독이 깔아놓은 요소들을 (나름대로) 캐치하고 해석해볼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는 그 메타포들이 너무나 단순명료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심심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은 이 영화가 “젊은이들의 분노와 상실감에 대한 영화”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엔 젊은이‘들’이기보다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젊은이의 외로움, 상실감과 분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벤과 해미의 분노와 상실감은 거의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국 종수라는 청년의 외로움, 상실감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거죠.■ 이 영화에는 세 청년이 나옵니다. 종수, 해미, 벤입니다. 이들의 캐릭터는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해요. 종수는 일반적일수도 있고, 약간 삶이 힘들 수도 있는 서민이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처음엔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박혀있어서 뭘 해도 멋있게만 보였지만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조금씩 종수로써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고지식하고 순수한 청년 종수 말이죠 (그럼에도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외모나 간지 때문에 자꾸 종수를 잊을 뻔 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론 미스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인의 연기가 좋았던 건 별개의 문제고요).■ 해미는 ‘그레이트 형거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청년.’ 뭐 이런 식의 캐릭터로 해석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다 그냥 그럴싸해보이게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제 우리 세상에서 보자면 해미는 순간에만 집중하는, 대책 없고 별 생각도 없는데 묘한, 팜므파탈적 매력이 있는.. 그런 ‘여자’ 같아요. 해미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소모적인 여성 캐릭터로서 역할을 했다는데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역시 여자로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여자가 갑자기 증발해버려 혼란과 고뇌가 오고... 이건 남녀 캐릭터의 성 역할이 바뀐다고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무 뻔하고 올드한 전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큰 고민 없이 너무 쉽게 대중적 개연성을 끌어왔는데 그 방식이 한편으론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쉬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종서는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 다른 배우들에 비해 연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미지만 철썩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보니 심지어 캐스팅조차 여성 캐릭터는 소모적으로 캐스팅이 된 것인가.. 하고 확대해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 해 보면 충분히 화가 날 사람들도 있을테고요. ■ 벤도 사실 해미랑 비슷한 캐릭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순간을 살아가죠. 그러나 조금 다른 건 사회적 위치, 환경적 풍요로움인 것 같습니다. 벤은 어쨌든 부유한 가정의 아들, 금수저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접해왔고, 그래서 해미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이 큰 것 같아요. 그 갈망과 욕망이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 결국에는 은밀하게 표출되는 범죄영역으로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영화 내용상 크게 알 수 없지만). 벤의 경우도 사실 미스 캐스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캐릭터인지 모호하게 하고 싶었다는 게 감독의 의도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모호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벤의 이름은 벤입니다 (불사를 번-燔, Burn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유치한데 정말 그럴 것만 같은 유래가 있긴 하지만). 왜 영어 이름인가? 교포인가? 싶은 의문이 들고 당연히 관객들은 교포라고 생각할텐데 (스티븐 연에 대해 이미 많이들 알고 있으니) 캐릭터의 말이나 행동은 전혀 교포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미도 모르는, 서울에서 잘 하는 곱창집도 알고 있으니까요(근데 또 한국말을 하는 발음은 대단히 교포같아 또 다시 혼란에 빠지는게 문제지만요). ■ 하여튼 이 영화는 이 세 캐릭터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질투를 하게 되고, 한명이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분노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캐릭터 다 분석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한 인물을 선택해야 하니 저는 종수를 골랐습니다. ■ 처음 해미와 종수의 만남에서부터 종수는 자신의 성격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해석한 종수는 딱히 매력이 없어요. 수동적이고, 조용한 편이고, 어느 정도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데) 전혀 글을 쓸 것 같지 않게 생긴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중반 종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종수가 그저 가만히 있는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종수는 배달을 했을 뿐인데 춤추던 옛 동창, 해미를 만나게 되고, 해미가 먼저 술을 먹자고 합니다. 해미가 집으로 데려오고, 해미가 데려온, 아프리카 공항에서 만난 벤과도 해미가 불러서 어울립니다. 해미가 사라진 후부터는 해미를 찾기 위해 추적을 하지만 그마저도 딱히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미행만 하다가 어떤 때는 벤에게 들키고, 어떤 때는 안 들키면서 점점 자신의 확신을 더해가고,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게 살인입니다. 와우. 이렇게 쓰고 보니 극단적인 인물이네요. 감독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재미없던 주인공 종수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변화하는 모습을 제대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려는거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종수는 살인을 저지른 후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 추위에. 팬티까지 짹 다 벗고 벤의 시체와, 차와 함께 자신의 옷을 불태우고는 비틀비틀 해골처럼, 또는 막 태어나 걷기를 시작한 송아지처럼 이상하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가 봐도 딱 보이는 메타포죠. “그는 새로 태어났다.” ■ 결국 이 이야기는 지극히 일반적인, 힘든 삶을 살던 종수가 변화하고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닐 수 있겠어요. 결국 종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저지를 살인마니까요. 벤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놈인지 아닌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으니 벤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죠. (게다가 제가 해석한 벤은 그저 생각 없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용해 즐겁게 살아보려 하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항상 갈증을 느끼는 양아치 정도지 여자를 죽였을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어요. ‘해미가 도망갔나’, ‘죽임 당했나’, ‘누가 죽였나’는 이 영화의 포인트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종수가 어쩌면 비극적이게 다시 태어나게 된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해미와 만나고, 엮이게 되면서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종수는 왜 해미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종수는 과연 누군가를 죽일만큼 해미를 사랑했을까요? 종수는 정말 해미의 원한을 갚기 위해 벤을 죽인걸까요? 종수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길래 송아지 똥을 치우며 노래를 부를 만큼 순하고 착한 청년이던 종수가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된 걸까요? ■ 우선 초반에 종수가 해미와 술을 마시는 장면부터 생각해봤습니다. 종수는 사실 해미가 이상한 글 얘기를 할 때부터 해미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딱히 도드라지는 어떤 반응은 없었으나(어떤 반응이 있다면 정말 유치해지겠네요) 종수는 해미에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수는 판토마임을 배우는 해미를 칭찬하고, 해미는 ‘판토마임은 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이 없다는 걸 잊으면 된다’는 이상한(데 앞으로 이 영화의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될)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수는 시종일관 해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해미는 먼 미지의 세계 같은 아프리카 얘기까지 꺼내며 종수에게 새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 계산을 마치고, 종수는 졸고있는 해미 옆자리에 앉죠. 그것만으로도 종수의 마음은 이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종수는 앞으로 해미에게 의지하고 잘 쟁겨주겠구나... 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죠. 해미의 부탁으로, 해미네 집의 보이지 않는 고양이 보일에게 밥을 주려 갈 정도로 종수의 인생에 해미가 들어와버렸으니까요. 뭐 사랑은 딱히 이유나 개연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종수가 해미를 사랑하게 됐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그 다음, 해미가 아프리카 여행 후 돌아왔는데 벤이라는 남자와 함께 오게 됐을 때부터 다른 감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바로 영화를 끌고 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감정은 바로 종수의 열등감, 질투입니다. ■ 보통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 대해 (여자 때문에든 어떤 이유로든) 질투,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영화의 주된 내용이 되면 유치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버닝>은 그 감정을 상당히 세련되게, 영화적으로 잘 구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까지 표현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선 이야기면에 있어서는 벤이 절대 질투의 대상, 악역이 아닙니다. 벤은 애매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이에요. 종수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 가식적이게도 보이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은데 그가 사는 환경은 종수는 꿈도 꿔보지 못한 부유한 환경입니다. 벤은 종수에게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그저 종수와 만나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만 던질 뿐이죠. 그런데 종수는 계속 한없이 열등감,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종수가 시기하는 대상은 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벤의 성장 배경을 통해 벤이 가지게 된 부유함에 찔은 사고방식. 종수 자신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데 이들은 배가 불러 더 이상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해 더욱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그 불공평함.. 같은 종류들인 것이죠. ■ 결국 종수가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는 벤 때문이 아니라 벤의 탈을 쓴 불공평한 사회 구조 때문인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다시 조금 전 해미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면 종수가 해미에게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 역시도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해미와의 공감대와 차이점 (1. 이 부당한 사회 속에서 해미는 자신과 같은 부당함을 공유하고 있고 2. 그럼에도 종수 자신은 갖지 못한 꿈,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해미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창동 감독님도 이 이야기를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던 것이겠고요. ■ 정리를 해 보자면 종수의 감정은 ‘질투’, ‘열등감’에서 시작되어 해미가 사라진 후에는 그 사건에 집착을 하다가 ‘불공평함’, ‘부당함’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변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를 향할 수도, 누구에게 풀 수도 없는 ‘어떤 분노’가 되어버린 무기력한 청년의 감정으로서 영화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종수는 여러 감정들의 변화를 거쳐, (한편으로 본다면)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종수 감정의 변화를 시작부터 함께 했던 우리 관객들은 다 알고 있죠. 종수라는 괴물이 사실은 진짜 괴물이 아니라는 걸요. 또 우리 관객들 역시도, 언제든지 종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종수가 결국에는 범죄자가 됐음에도 안타깝고, 종수를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나쁜 것은 평범했던 종수도, 부유한데 수상한 벤도, 꿈을 꾸다 사라져버린 해미도 아닌, 이 모든 가치 충돌들을 야기시킨 사회,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게 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종수라는 청년이었지만, 이런 감정 변화들,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은 꼭 청년들만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창동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야기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윤리가 아닌 도덕 밖에 없다”고 정성일 선생님이 저번 수업에서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가 바로 윤리가 아닌 도덕을 묻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종수가 별인 행동, 벤의 행동, 해미 행동의 옳고 그름을, 즉 그 사건과 행동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이야기는 ‘도덕적 질문’을 던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종수 같은 사람들은 힘들게 일 하며 별 희망도 날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벤 같은 사람들은 이유도, 타당성도 없이 여유롭게 (그러나 항상 느끼는 허기를 다른 이상한데 풀며) 살고 있고, 해미처럼 순간에 충실하고 대책 없지만 꿈꾸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셋이 어찌저찌 얹히고 엮여서 충돌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영화 속에선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거야. 그러나 이게 잘못일까? 잘못이라면 누구의 잘못일까?” 이런 질문들을 영화를 진행시켜나가며 스스로에게,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창동 감독님은 자신만의 도덕적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연출적 결정을 하는데 담으신 것 같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마지막 장면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진 이창동 감독님의 연출적 결정의 도덕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적 측면에서 먼저 봤을 때 이창동 감독님은 종수가 벤을 칼로 찔려 죽이고, 옷을 다 벗은 후 불태우고 트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적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늦게 봐서 이미 이 결말을 알고 있었긴 하지만 결말을 몰랐던 관객들이라면 이건 나름의 놀라운 반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종수가 벤에게 뭔가를 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가장 확실해봤자 해미가 선물로 줬을 수도 있는 해미의 손목시계니까요) 영화가 벤을 범인으로 제대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영화는 항상 벤을 애매하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종수가 벤을 죽인 건 꽤나 충격적인 결말일 수 있겠는데 이창동 감독님은 그 충격적 결말을 이 이야기의 결말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이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감독의 선택은 벤을 죽인 종수가, 그와 그의 차를 불지를 때 자신의 옷을 다 벗어 함께 태운다는 것인 듯 해요. 종수의 (살인) 행동에 대한 감독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셈이죠 (영화 내내 이런 식으로 감독의 ‘주관적인 도덕적 해석’이 명백하게 보여져요). “종수는 다시 태어났다(또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했다). 관객들아. 종수가 잘못한걸까? 한번 생각해봐줘.” 하고 감독은 이런 이야기 선택을 통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거죠. ■ 그럼 이제 배경 장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 횡한 시골 도로의 갓길에서 벌어집니다. 이 장소가 결정된

데 있어 배경적 측면에서 감독의 선택을 엿볼 수 있겠어요. 사실 종수가 벤을 죽이는 큰 사건이 벌어질만한 장소의 후보지들은 여기저기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감독은 이런 횡하고 척박한(?), 하지만 뒷 배경은 논밭도 산도 보이는 시골 도로 갓길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왜 감독은 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시골 도로 한복판을 배경으로 선택했을까요? 답을 찾아보기 위해선 이 영화에서 자연이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영화에서 자연은 사건들의 진행과 함께 큰 은유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은유를 보여주느냐...한다면 사실 그건 다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자연을 많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영화 내내 시골 모습, 노을이나 하늘, 자연 풍경이 나올 때마다 왜인지 ‘하찮은 인간과 사회’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 중반부, 해미가 노을을 보며 옷을 벗고 춤추다 우는 장면에서는 자연이 포커스 인.아웃이 반복되며 보여졌고 이후에 종수가 벤에게 “나는 해미를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할 때는 종수의 얼굴이 아니라 노을을 보여주죠. 해미와 벤을 떠나보낸 후 역시 종수의 얼굴 표정이 아니라 역광으로 종수 뒤의 자연만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영화 속 캐릭터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있을 때 자연이 나오면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들이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피터지게 싸우고, 상처주고 있는데 알고보니 대자연이라는 어머니의 백속에서 꼼지락대는 것일 뿐이었다는 느낌이에요. 하여튼 그러다보니 이 마지막 장면의 장소 역시도 저는 종수가 벤이라는 한 인간을 끝장내는 중요하고 무거운 사건이고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하찮게 보이기도 해서 이들의 상처와 충돌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으로, 촬영적 측면에서의 감독의 선택은 어떤 도덕을 보여주는가를 고민을 해 봤어요. 마지막 장면은 계속 핸드헬드로 보여진 것으로 기억해요. 핸드헬드는 보통 현실성 있게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을 때 핸드헬드를 쓴다고 배웠어요. 실제로도 주인공과 더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 마지막 장면에서의 핸드헬드가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핸드헬드니까 종수 가까이에서 종수의 마음을 대변하며 촬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인지 종수같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종수와 벤의 그 몸싸움과 죽음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그 현장에서 구경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종수가 벤을 칼로 찌를 때도 가까이서 잡지 않고 멀리서 풀샷으로 그 중요한 장면을 담아 극적 효과가 떨어졌고, 그 후에도 종수가 불을 붙이려고 왔다갔다 할 때, 옷을 벗고 자신의 차에 탈 때까지도 핸드헬드 카메라는 계속 중간쯤 서서 구경만 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다 감독의 자신만의 재미(?)같기도 한데 이 싸움이 있기 전전 씬이 종수가 해미 집에서 글을 쓰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은 또 왜인지 종수를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점점 창문 밖으로 빠지면서 무슨 영화가 끝나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 말은... 결국 이 엔딩은 종수의 상상인가? 소설속 이야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게 감독의 의도 같아서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감독은 관객을 헷갈리게 하고,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으며 심지어 제일 마지막 컷 조차 종수의 얼굴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비인지 눈인지가 내려 뿐옇게 된 차 유리 창문을 보여주다가 정말로 영화가 끝나기 한 4초 전쯤에야 유리창문이 스와이퍼로 닦이면서 종수의 얼굴이 보여지고 영화가 딱 끝나는데... 많은 관객들이 이 불명확한 엔딩에 화가 날 것 같아요 (엔딩뿐만이 아니라 영화 전체에 걸쳐 그래왔지만). 사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영화를 본 후 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요.■ 이 영화는 많은 부분이 시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함축적 의미들이 대사 속에는 숨어 있는데 화면 속에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랬던 것처럼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본다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열심히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본다면 이것저것 할 얘기들이 엄청 많은 영화인거죠.■ 영화도
독서처럼, 다양한 종류와 그것을 즐기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 없이 봤을 때
재미있는 영화도 있고, 생각 없이 보면 지루한 영화도 있죠. 치열하게 머리 굴리고 무언가를
고민해보고 싶다면 철학책을 읽으며 생각을 가동시키고, 즐겁게 새로운 이야기, 흥미로운
세상을 따라가고 싶다면 소설을 읽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의 매력과 맛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투자 받거나 나오지 못하는 종류의
영화 같아서 반가웠어요.(비록 저도 첫 관람 때는 열심히 졸았지만) 근데 만약 이런
시나리오로 신인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투자사들을 찾아간다면 절대 거절당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창동 감독님을 부러워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